



조간 제7812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음력 2월 29일)

## 현대판 모세의 기적... 바다 갈라지는 자연의 신비 만끽

### 여기가 핫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바다가 갈라지는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제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도 고군면 일원에서 4일간 개최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 사이 약 2.8km의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바다밑이 40여m의 폭으로 물 위에 드러나는 현상이다. 매년 이를 보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수십여만명이 방문, 바닷길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1시간의 기적을 구경한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은 1975년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가 진도를 찾았다 이 현상을 목격하고 프랑스 신문에 소개되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군에서는 과거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도 바닷길을 열리게 했다면 '뽕할머니'의 제사와 풍어, 소원성취를 비는 기원제를 축제로 승화해 이어가고 있다.

올해 축제는 '새길을 열다'라는 구호 아래 전설과 예술, 음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내용으로 준비된다. 우선 29일 개막식에서는 김산옥 무용수의 주제 공연 '새길을 열다'와 함께 가수 송가인의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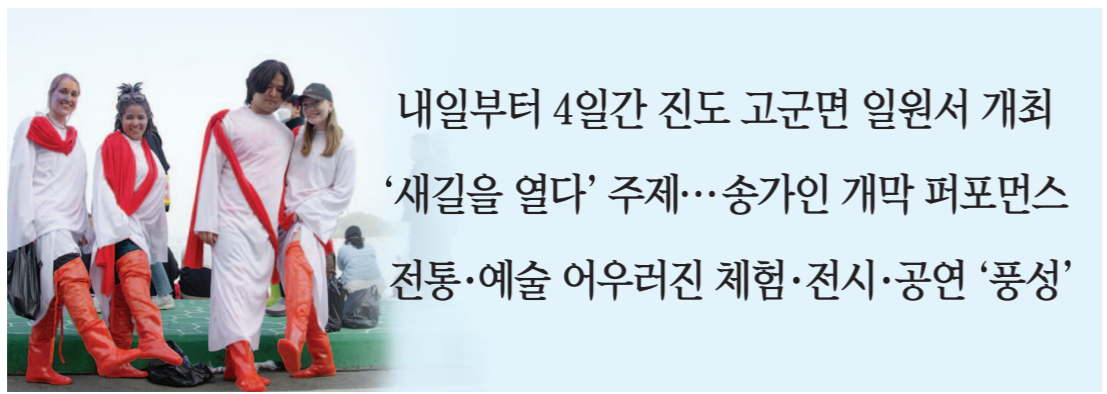
무대를 채운다.

29일에는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과 설하운, 지역민의 참여 공연으로 펼쳐지며 30일에는 청소년댄스 및 노래 경연과 함께 개그우먼 흥현희, 조수현, 1000만 명방 유투버 소영, 댄서 하리무가 무대를 빛낸다. 4월 1일에는 윤도현 밴드(YB)의 단독 공연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흥을 돋운다.

이와 함께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공연, 진도 씻김굿, 다시래기 등으로 구성된 진도무형유산공연은 매일 오후 회동 공연장에서 관광객들을 만난다.

천연기념물 진도개의 사랑스러움과 명석함을 살펴볼 수 있는 진도개 독(DOG) 스포츠는 글로컬 새빛 무대, 해안도로(뽕할머니 동상 앞)에서 축제 기간 하루 2회씩 진행되며, 진도아트비치에서는 청년 버스킹 공연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들의 릴레이 공연이 펼쳐진다.

진도의 과거를 살펴보는 조도맞배 공연은 30일 회동 앞바다에서 전통국악과 무용 공연으로 구성된 모도 소리는 29일부터 3일간 모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진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된



내일부터 4일간 진도 고군면 일원서 개최 '새길을 열다' 주제... 송가인 개막 퍼포먼스 전통·예술 어우러진 체험·전시·공연 '풍성'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히 창작무용과 함께 선보이는 주제 노래, 푸른밤의 전설을 예술로 풀어낸 공연은 진도만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의 주제가 담긴 대형 야외 미술 전시 진도아트비치도 마련된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형 야외 미술 전시로, 1km에 걸쳐 펼쳐진 세 개의 구간(A, B, C)에는 21점 이상의 조형물과 패체 미술(미디어 아트)이 설치돼, 낮에는 조형미를 감상하고 밤에는 조명과 공연을 통해 또 다른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에이(A) 구간에서는 축제의 상징인 '2025푸른밤' 이야기가 조형물로 구현돼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축제 기간 진도 앞바다의 작고 평화로운 섬 모도는 '보물섬'으로 변신한다. 이곳에서는 보물찾기 사진대회 '포토렐리'가 축제 동안 하루 3회씩 펼쳐지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마을 주민이 손수 차려주는 모도 밥상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뽕할머니의 전설을 판소리로 들려주는 '모도소리', '슈퍼문 인증사진 이벤트' 등이 펼쳐지는 등 자연과 이야기, 미식이 어우러진 '느림의 미학'을 만나볼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행사도 마련된다. 공연으로 지역이 들쭉날쭉하다. 눈에 띄는 행사는 '진도읍 미라클 콘서트'다. 29~31일 진도읍 칠마공원에서 열리는 미라클 콘서트는 장르를 넘나드는 가수들이

다. 글로컬 새빛 무대 앞에 마련되는 '레드로드'로 진도 흥주를 활용한 카데일과 하이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진도의 농수특산품으로 만든 특선요리를 함께 선보인다.

진도군은 자연과 함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캠프닉존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가계해수욕장 앞에 마련됐다. 돛자리 위에 도시락을 펼치고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도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회전그네, 꼬마기차,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 놀이기구 체험부터 오징어 게임 테마 놀이, 음악이 있는 심터와 감성 체험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흥미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세계적인 행사인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가계해수욕장에서는 바닷길 열림 기원 컬러파우더 던지기 퍼포먼스 '컬러풀진도'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K-POP 월드스타 경연대회가 '글로컬 새빛 무대'에서 열린다. 국내외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율금막걸리, 흥주 하이힐 마시기 대회도 펼쳐진다.

김희수 군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였다"며 "기적의 바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장을 찾는 가족, 친구, 연인 모두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피크닉존



복불이 퍼레이드



바다가 갈라지는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제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도 고군면 일원에서 4일간 개최된다.